

베이직하우스, 청바지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 30ppm 이상 검출 ... 염색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베이직하우스는 10월30일 청바지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기준치 30ppm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10월2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베이직하우스 청바지에서 아릴아민(Aryl Amine)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해 베이직하우스가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한국섬유시험검사소 등 2곳에 재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릴아민은 청바지 생산공정 과정에서 염료를 사용하는 틴 및 오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직하우스 관계자는 “재검사한 완제품 테스트에서 아릴아민이 검출돼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청바지를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교환·환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료를 사용하는 틴 및 오일 공정이 적용된 다른 청바지 제품들도 재테스트를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베이직하우스는 청바지의 생산매뉴얼과 생산공장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해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30>